

제 65 호

서기 1999년(단기4332년7월26일(월)발행
 서기 1983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 (02)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팩스 : (02)2243-1073



發行人: 金相祚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 2244-3717
 FAX: (02) 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수단비온라인: 국민은행 356-01-0011-568 예금주: 안동김씨대중회

第 32 回 定期總會 開催

지난 5월 1일 大宗會 제 32 회 定期總會를 휘경동 봄클웨딩홀에서 경향 각지에서 운집한 300 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정각에 사회자의 개회 선언으로 개막하였다. 이날 사회는 대종회 이사인 在光 宗親께서 맡아 會順에 의하여 國民儀禮에 이어 先祖英靈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다음으로 大宗會 발전에 기여하신 전임 대종회 회장이시며 현재 고문이신

在基 賢宗께서 感謝牌를 수여하고 學究에 열중하여 박사 학위와 고시에 합격한 宗親들에게 祝賀牌를 수여하고 회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대종회 고문이신 瑤會 賢宗의 祝辭를 마친 다음 洙栢 감사로부터 98년도 대종회 회계 업무를 감사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
 다음으로 98年度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99年度 세입 세출 예산안, 99年度 사업계획 승인을 상

정하여 총무부장이 설명하는 도중 익원공파의 성회 종친께서 긴급동의를 제청하여 발언권을 얻어 지금 총무께서 설명하는 결산 예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감사님이 감사 결과를 설명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의회를 이사회에서 면밀히 심의 결정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니 전원이 재창 삼창 여지없이 큰 박수로 승인 하였다. 다음으로 정관 일부 개정에 들어가서 정관 7장 집행부서 제 24 조 부서 1 항 總務部를 事務局으로 개정할 것을 會長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니 찬성을 묻기도 전에 전원이 큰 박수로 찬성하여 가결하고, 98年度 會務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2부로 임원 개선에 들어가 新任會長과 副會長 監事選任에 대한 경과 보고를 副使公派 會長이시며 대종회 운영위원이신 在殷 賢宗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의 경과사를 설명하고 신임 회장에 相祚 會長님을 추대하고 수락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승인을 청하니 큰 함성과 박수로 회장을 만장일치 승인하였다. 다음으로 副會長은 두 분은 유입기로 하고 개인 형편으로 사임을 한 相祺 副會長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장이 추천하여



위촉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이 또한 만장일치 가결하였다.
 다음으로 감사 2명중 한 분만 개선기로 하고 文溫公派 榮煥 賢宗을 선출하였음을 보고하고 승인을 청하여 만장일치 찬성 가결하였다.
 다음은 相勳 會長께서 新任 相祚 會長과 뜨거운 악수와 더불어 宗旗를 전수하고 앞으로 많은 노고를 부탁하며 두 분은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종친들께 감사의 의를 전하였고 이어서 신임 회장의 就任辭로 第 32 회 정기총회의 막을 내렸다. 신임회장 취임사는 다음과 같다.

就任辭

존경하는 대종회 회장님, 임원님 그리고 회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가 안동 김씨 대종회 회장으로 취임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유능하신 종친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민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종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
 2면에 계속



祝 發 展

新任 任員 公告



1. 顧問

密直司使公派 泰倫
 郡事公派 載鴻
 郡事公派 在哲
 郡事公派 元會
 副使公派 東哲
 文溫公派 在洪
 文溫公派 在龍
 文溫公派 在應
 文溫公派 在衡
 都評議公派 用秀
 都評議公派 泰祚
 提學公派 相溫
 提學公派 相蒙
 提學公派 相祺
 文溫公派 在承
 按廉使公派 在華
 按廉使公派 在德
 按廉使公派 思興
 按廉使公派 元卿
 按廉使公派 在基
 按廉使公派 好振

按廉使公派 泰麟
 翼元公派 泰亨
 翼元公派 在元
 翼元公派 明會
 翼元公派 在聲
 翼元公派 在憲
 翼元公派 在弓
 翼元公派 吉成
 翼元公派 瑤會
 翼元公派 明燮
 翼元公派 信
 翼元公派 秉默
 翼元公派 俊會
 翼元公派 光植
 書雲觀正公派 學永

2. 運營委員

密直司使公派 惠默
 開城尹公派 昌麟
 郡事公派 在錫
 典書公派 根成
 副事公派 在殷

文溫公派 琮會
 安靖公派 在煥
 都評議公派 聲秀
 大護軍公派 丙會
 提學公派 鶴應
 判三司公派 德允
 按廉使公派 在澤
 翼元公派 容大
 書雲觀正公派 嗽永
 正儀公派 允會

3. 理事

密直司使公派 炳錄
 開城尹公派 相國
 郡事公派 潤洙
 郡事公派 在甲
 典書公派 承會
 副使公派 圭恒
 文溫公派 在根
 文溫公派 光道
 都評議公派 鳳會
 都評議公派 廷秀

都評議公派 溼秀
 大護軍公派 在吉
 提學公派 泰成
 提學公派 泰燮
 提學公派 奎馨
 提學公派 南應
 按廉使公派 道演
 按廉使公派 昌會
 按廉使公派 在元
 按廉使公派 在均
 按廉使公派 會潤
 按廉使公派 聖會
 按廉使公派 鎰會
 翼元公派 滿吉
 翼元公派 在起
 翼元公派 榮俊
 翼元公派 昊植
 翼元公派 泰集
 翼元公派 文會
 翼元公派 先會
 翼元公派 在光
 翼元公派 永會

翼元公派 容世
 書雲觀正公派 圭冕
 正儀公派 範植
 大邱宗親會 潤天(泰賢)
 大田宗親會 容郁
 瑞山宗親會 鍾會
 曾坪宗親會 在成
 燕岐宗親會 海演

4. 本部

提學公派 名譽會長 相勳
 提學公派 會長 相祚
 按廉使公派 副會長 斗會
 翼元公派 副會長 容學
 郡事公派 副會長 東會
 翼元公派 監事 洙栢
 文溫公派 監事 榮煥

5. 執行部

翼元公派 事務局長 命會
 密陽人 經理部長 孫潤順

1면에서 계속

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저는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이 쌓아올린 훌륭한 업적과 자랑스러운 대종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주도하는 우리 대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임 회장단에서 추진하여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종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모든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종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종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참과 따뜻한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에 계시는 종친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불초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아

끼지 않으신 종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대종회 회장으로서의 중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요약해서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대종회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목적 사항을 보면, 그 첫째가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돈독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상의 빛난 얼을 선양 보존하여야 하는 일이며,

셋째로는 자손의 승조이념을 고취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1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상조

1998年度會計決算 理事會議 開催

지난 4월 26일 대종회 98년도 회계 결산 및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이사회를 대종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총무의 개회사와 성원보고가 있던 다음 국민의례와 선조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회장님 인사말이 있던 다음 감사로부터 회무 감사 결과를 먼저 보고 하였다. 세입 세출 결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는 금년에는 지루한 설명을 하지 않고 또 사전에 집에서 심의를 하여 회에서는 의문점만 말씀드리고져 먼저 회무 결산서와 예산서 등 일체의 회의서류를 사전 송부해 드렸으니 우선 결산서중 의문 나는데만 질문해 주시면 답하여 드리겠다고 말하자 琮會 理事께서는 이번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님의 사전 결산 감사의 경과도 들었고 또 서류를 사전에 보내주어 홀터분바 이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료 미수금이 친구만삼백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어느 점포에서 얼마가 미납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관2 미수금 목 97년도 미수금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미수금 이자를 합한 금액이 천 칠백 오십 칠만 삼백원중 금년에 결산한 결과 칠백 사십팔만을 받아 천 구만 삼백원이 감된 것은 작년에 지하 채소의 미수금 구백 삼십오만 삼백원을 빼면 육십사만원이 실지 미수인데 이는 현대건강신문사의 미수금이고 한국채소 미수금은 공장의 파산으로 작년에 결손처분 신청을 하였던바 이는 당년에 처분하는 것 보다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그때에도 불가능하면 결손처리 해도 늦지 않으니 유보하는 작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행되어 서류상으로 큰 차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이 결손처리에 대한 품의서는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이 바로 그 결손처리 관계를 결의코자 한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결손처분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설명을 하니 만장일치 결손결의를 하였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이상없으니 결의할 것을 恒植 이사가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다음으로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는데 在均 이사께서 다 잘 되었으나 제수비에서 할아버지 제수비와 할머니 제수비가 왜 차등을 두었느냐 이는 똑 같이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동의하여 칠십 오만 원씩 같이 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다음은 장학금과 총렬공 전기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집행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의하였다. 다음 定款 一部 改正에서 大宗會 定款 第7章 第24條 部署 1項 總務部를 事務局으로 改正할 것을 上程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의를 회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종회 총무는 대내에 업무관장에 많은 活躍이 있는데 總務部長은 너무 빈약한 느낌이 있어 事務局으로 격상함으로 内外적으로 대종회의 위상이 서리라 생각되어 改正코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니 동의를 여지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하였다.

끝으로 지난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新任會長 選出의 경과를 當日 臨時議長을 맡았던 在股 운영위원께서 설명하고 회장께서 承認을 請하여 만장일치 박수로 승인하고 新任 相祚 회장님의 간단한 人事를 마치고 하오 1시에 閉會를 하고 점심식사의 자리에서 大衆會 發展과 新任會長을 祝賀하는 건배를 제창하고 화기에애한 답소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회했다.



이사님들께 결산보고를 하는 두회 부회장님(좌)과 명회 사무국장(우)님

凡 國民運動으로 전개하는 白凡紀念館建立에 우리도 함께 참여 하자.

이번에 전개하고 있는 白凡紀念館建立 推進에 있어 먼저 지난 총회시 취지문을 나누어 드린바 있으며 대종회에서 우리 門中の 榮光으로 생각하고 회장님을 비롯한 종친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하여 이에 종친들의 열성있는 참여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大宗會에서는 會長이 이 事業에 推進委員으로 추대되었으며 명예회장 相勳씨, 국회의원 明燮씨, 문영공 종회장 道演씨, 익원공파 명예회장 琮會씨, 翼元公派 회장 容大씨가 추진위원으로 추대되었으며 우리는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하여 이에 동참기로 하는바 전 임원님들이 추진위원이 되시어 총력을 다할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편집부

우리 大韓民國의 뿌리는 憲法前文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大韓民國 臨時政府이다. 누가 온갖 逆境 속에서 臨時政府를 지킨 臨時政府 '문지기'였으며, 누가 臨時政府 主席으로서 祖國의 自由와 獨立을 위해 最後까지 血鬪를 展開한 萬古의 愛國者인가. 우리는 白凡 金九 先生이 바로 그 분임을 모두 알고 있다.

白凡 金九 先生은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이 네 所願이 무엇이냐고 세번이나 연달아 물으셔도 세 번 다 더욱 소리 높여 "내 所願은 우리 나라 大韓의 完全한 自主獨立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하셨다. 또 祖國 分斷의 悲劇 앞에서 "나는 統一된 祖國을 建設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一身에 苟且한 安逸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白凡 先生의 수많은 가르치심이 七千萬 同胞의 가슴을 울린다.

殘酷한 日本 帝國主義자들이 天文學的 懸賞金을 걸고 日帝 軍警을 풀어 百方으로 쫓아도 해치지 못한 先生을 우리는 光復 後 祖國 땅 위에서 歸國하신 先生을 잃었다. 先生이 우리 겨레에게 바치신 河

白凡紀念館 建立 趣旨文

우리는 大韓民國 은 國民의 이름으로 白凡紀念館의 建立을 決意하고 이에 그 發起를 宣言한다. 白凡 金九 先生은 그의 波瀾萬丈한 生涯를 오직 祖國과 民族의 獨立과 統一에 모두 바치신 우리 民族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民族指導者이시다.

新任會長 就任 告由祭 奉享

지난 6월 11일 金요일 新任會長 相祚 회장님께서 忠烈公 考妣位墓所에 會長就任 告由를 하였다.

이 날 회장취임 고유행사에는 임원들이 같이 전세버스로 용산역 앞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여 중평괴산을 거쳐 그 지방 임원들과 만나 안동에 12시에 도착하여 안동지방 임원과 종친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대구에서 종친들이 칠팔명이 올라와 60여 종친들이 參詣했다.

안동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忠烈公山所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 30분 미리 준비한 祭需를 차리는 동안 영정에 참배하고 到記(제각에 비치한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일)를

한 다음 산소에 올라가 告由를 마치고 바로 檜谷洞 할머니 산소로 가는 길에 신도비각에 들려 돌아보고 회곡동에 하오 2시 반경 도착하여 산소에 고유하고 遺墟碑閣齋室을 둘러본 다음 잠깐 종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大邱 安東地方 宗親들과 이곳에서 작별을 하고 귀경길에 올랐다. 이 날 소요 경비 중 일백만원을 회장님이 喜捨하셨으며 安東에 사는 正儀公派 會長 允會 현종이 그곳土俗酒를 선사하여 귀경길에 飲味하며 회장님이 하諸宗들의 호뜻한 마음으로 이날의 행사를 마쳤다.

海같은 恩功에 어울리는 報答은 커녕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했다 했는가. 하늘이 울고 祖國 山川도 모두 痛哭할 일이다. 이리고서도 우리 韓民族이 先進 國民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온 國民의 精誠과 벽돌을 하나씩 모아, 뒤늦게라도 白凡紀念館을 建立하려 한다. 白凡을 紀念하는 이 殿堂에서 國民들과 우리 後孫들이 白凡의 精神과 思想을 배우고 繼承 發展시키며, 白凡이 세우고자 했던 自由獨立하고 統一된 民主的 先進 文

化國家를 建設 發展시키고 全世界 全人類와 世界平和에 寄與하는 일을 討論 構想하려 한다. 이것이 白凡 先生이 우리 民族에 바치신 精誠에 萬分の 一이라도 報答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 동포 학생들은 白凡紀念館을 세우는 일에 벽돌 한 장씩 정성을 모아 白凡精神을 繼承해서 韓民族의 獨立 統一과 全世界 人類의 平和로운 共同發展을 위한 熱意를 다시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白凡 서거 50주년 호창원서 추모식

백범 김구(金九) 선생 서거 50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호창원 백범묘역에서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엄수됐다.

이만열(李萬烈)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기념사업회장인 이수성(李壽成) 전 총리와 김수한(金守漢) 전 국회의장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 최규학(崔圭鶴) 국가보훈처장, 윤경빈(尹慶彬) 광복회장, 백범 차남 김신(金信) 대종회 고문 등 각계 인사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 보훈처장은 추모사에서 "선생의 애국적 발자취를 교훈삼아 경

제위기 등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로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오후 7시 30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는 200명으로 구성된 연합시립합창단의 합창과 이애주 교수의 춤공연 등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변정수(卞禎洙) 전 헌법재판관, 백기완(白基玩)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은 오후 2시 김구 선생이 1946년 안두희의 지격으로 서거한 경교장이 위치한 강북삼성병원에서 별도 추모식을 가졌다.

世居地 鄉祖 墓域淨化事業 完了



安東金氏 文溫公派 參議公系 全羅都事公 宗中에서는 지난 4월 6일(寒食)에 13世祖이신 兵曹佐郎 全羅都事公 諱 克寧과 14世祖이신 軍資監正公 諱 鏜(父子) 할아버지의 墓域 淨化事業이 말끔히 丹粧 完了되어 여러 宗人이 참석 寒食世享 1999年度 定期總會를 盛大히 치렀다.

넉넉한 宗財가 없는 환경 속에서 世居地 鄉祖이신 全羅都事公과 成均進士 軍資監正公 할아버지의 封價를 드높게 修築하고 이끼 끼어 判讀이 어려웠던 碑와 床石 文官石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墓域內에 宗中 公園墓地까지 造成하여 都事公 後孫이면 先祖를 모실 수 있겠음 마련하였다.

또한, 軍資監正公 할아버지의 墓 앞에는 朝鮮時代의 저 유명하신 白湖 林梯 先生의 詩碑까지 세우고, 林梯 先生이 吾門에 보내 所藏하여

오던 詩 4首 중 3首가 刻碑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날 吾門中の 元老이신 前 文溫公派 大宗會長을 역임하신 在承宗人께서 本 공사를 맡아 竣工하여준 여러 임원들의 勞苦를 致賀하면서 碑文과 詩碑의 來歷을 알기 쉽게 詩를 풀이하여 주시었다.

芝峰類說을 쓴 贈 領議政 李晬光, 洪吉童傳을 쓴 蛟山 許筠등은 先代 門中の 姑母夫가 되신다는 史記와 朝鮮의 民衆 詩人 白湖 林梯 先生이 全羅都事公 諱 克寧의 丈人이 되시며, 壬辰丁酉亂에 慶尙觀察使였던 文敬公 洪履祥은 都事公의 弟兄이 되시는데, 그 분이 加藤清正과 小西行長의 離間策을 써서 倭兵 侵攻의 勢力을 鈍化시킨 史記를 낱낱이 指摘하면서 우리 先祖의 活躍相을 公開하여주시어 宗人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여 주심에 崇祖和睦을 啓導하시었다.

또한, 全羅南道 長興에서 비롯한 義兵將 忠烈公 高敬命 先生은 3子가 壬亂에 活躍하였는데(錦山 전투에서 散華하심)

長孩 臨陂 縣令 孝烈公 高從厚의 長子 高傳立은 軍資監正公 諱 鏜 할아버지의 弟兄이 되신다는 것 妻男 男妹間이 昭顯世子를 모시고 丁卯胡亂을 避하여 내려온 領議政 申欽 등의 指揮下에 軍需物資 動員에 앞장선 軍資監正 할아버지의 活躍相을 姑從四寸 동생 미수 許穆 右議政이 서훈에 直接 영향 주었다는 점을 역설하여 주시었다.

當日 많은 宗人들은 先祖의 當당한 活躍相을 눈앞에 보듯 더욱 崇祖理念을 굳히며 歸路를 재촉하였다.

安東金氏 文溫公派 參議公系 全羅都事公 宗中

會長 文會 提供

定期總會에서 感謝牌 및 祝賀牌를 받은 분

感謝牌 받은 분
제 15 대 회장이며 顧問이신 在基 賢宗

祝賀牌 받은 분	
理學博士	定會 賢宗
行政學博士	慶會 賢宗
哲學博士	敬會 賢宗
工學博士	泰吾 賢宗
工學博士	賢植 賢宗
經營學博士	俊會 賢宗
國際辯護士	勳 賢宗
司法考試合格	泰貞 賢宗
工學博士	道會 賢宗
行政考試合格	明奎 賢宗

睦하여야하고 相扶相助하여야 하고 相敬相愛하여야 할 所以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淸州宗親會가 이러한 精神을 구체적으로 活性化하기 위하여 創立된지도 벌써 半世紀가 넘어 오늘 第 52 회 總會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全國적으로 보아서도 가장 오래된 安東金氏宗親會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일면으로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고 堅實하게 發展하여 왔다고 自負하고 同慶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바쁘신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宗親會에 참여하지 않고 無關心속에 傍觀만 하시는 분도 있는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禁할 수 없는 實情입니다. 이 小冊子는 平素에 적어도 이러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收錄하였습니다. 우리 後代의 젊은 宗親들에게 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많이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存續하여야할 宗親會이기에 仔細한 것은 省略한 채로 歷代會長과 年代만을 整理 記錄하여 淸州宗親會略史의 基礎로 삼았습니다. 未備한 점은 後日에 보태고 고쳐 나갈 것을 期待합니다. 宗親諸賢의 健勝하심과 高堂에 恒常 幸福이 充滿하시길 祈願하면서 人事로 代身합니다."

이어서 회무결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계획 등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이 날 奎馨 회장은 安東金氏 淸州宗親會 會員譜를 發刊하여 會員들께 나누어 주었는데 先祖의 略史와 抗爭屈從의 버팀목 金方慶 할아버지의 愛國忠情을 簡單明瞭히 記述하여 後孫들이 教訓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6월 11일 忠烈公 할아버지 할머니께 大宗會 會長 就任告由行事時 이 책을 복사하여 나누어 드렸다.

淸州宗親會 第 52 회 定期總會 盛大히 마쳐

지난 5월 30일 청주중친회는 제52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마쳤다. 이날 대종회에서서는 斗會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60여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순에 따라 泰英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회장인사에 奎馨會長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하였다.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人間이 삶을 營爲하며 社會를 이루고 國家를 經營하여 왔기에 歷史가 있고 그 오랜 時間과 空間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存在를 父母로 부터 이어 왔으며 그 먼 遠대에서 畢竟은 韓分의 先祖에서부터 비롯되었음에 想到할 때 참으로 귀한 天倫이라 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중에서도 같은 地域 範圍內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天倫이란 後天的으로 또는 人爲的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하늘이 맺은 倫紀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宗親들이 서로 親

華 燭

지난 5월 30일 大宗會 理事인 密直使公派 炳錄賢宗의 女婚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祝 榮轉

지난 6월 3일 翼元公 20代孫이며 孝昭公 17代인 雲會 宗親이 전남 구례 경찰서장으로 榮轉하였음을 祝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密直司使公派 總務인 在英賢宗께서는 大宗會 事務室 서쪽窓門에 여름철 커튼을 설치해 주었다. 이에 원가라도 받아야 한다는 大宗會 事務局長의 권유에도 '내가 돈을 받으라했으면 대종회에서 해 달라는 요청도 없는데 이것을 했겠습니까?'라며 극구 사양하였다. 이에 고마움을 드리는바입니다.

訃 音

前 大宗會 運營委員이시며 按廉使公派 會長이시었던 章會賢宗의 室人 求禮孫氏께서 老患으로 지난 6월 16일 自宅에서 別世하였음을 알립니다.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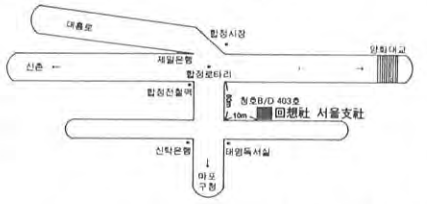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料,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碩快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の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 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256-1263
FAX (042) 253-9891 自宅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3층 3호 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제32회 정기총회시 찬조자 명단

1999년 5월 1일(토)

壹百萬원 : 相祚(會長), 한국무역협
회 회장 재철(郡)
八拾萬원 : 광명관광 사장 재주(按)
壹拾萬원 : 正義公派宗會, 翼元公宗
會, 大邱宗親會, 槐山宗親會, 익원공
파 회장 용대, 서운관정공파 회장
돈영, 부회장 용학(翼), 삼부해운
회장 태인(按), 재택(按), 창린(開),
태영(提), 재학(按), 재호(都), 재우
(按)
五萬 원 : 밀직사공파종회, 고창중
중(翼), 길성(고문 : 翼), 부사공파
회장 재은, 문은공파 회장 琮會, 수
백(감사 : 翼), 장희(郡), 재성(按),
재희(文), 학웅(提), 영돈(翼), 예목
(按), 태규(翼), 회경(翼), 재기(翼),
석용(郡), 덕희(判), 태호(正), 영희
(翼)
三萬 원 : 대호군종회, 중용(郡),
용세(翼), 제열(典), 상몽(提), 재면
(翼), 양(郡), 재영(密), 성희(翼),

운용(郡), 병목(翼), 상목(翼), 봉화
(判)
二萬 원 : 영수(翼), 찬목(翼), 용
화(密), 태성(提), 응목(密)
計 5,640,000원

제32회 정기총회시 통 상회비 납입자 명단

1999년 5월 1일(토) 20,000원
密直使公派 : 병록, 태운, 재영, 용화,
재소, 성희.
開城尹公派 : 창린, 상위.
郡事公派 : 종용, 재석, 건용, 정목,
강목, 경목, 재명, 재학, 삼용, 규희,
재윤, 성용, 수영, 승목, 태용, 재화,
영수, 성목, 두희, 재갑, 수인, 수기,
재석, 재용, 재수, 재근, 진희, 재영,
승목.
典書公派 : 대교, 육교, 태정, 광목,
근성, 재석, 재문, 재석, 재열, 태문,
용우.
副使公派 : 철호, 인희, 재철.
文溫公派 : 영환, 영광, 영광, 재만,
명희, 광도, 재덕, 태욱.
安靖公派 : 선호.
都評議公派 : 정수, 재권, 성수, 재호,
해수, 태병.
大護軍公派 : 경중.
提學公派 : 창희, 태욱, 윤천, 태홍,
상필, 규복, 상기, 용두, 도웅, 태동,
광호, 상천, 규성, 태성, 상국, 창규,
규보, 학웅, 태항, 성호, 삼규, 규태,
진웅, 상은, 태완.

判三司公派 : 덕희.
翼元公派 : 풍일, 의목, 영돈, 재용,
영준, 경희, 만교, 수인, 영옥, 용대,
용욱, 재관, 재광, 재기, 선희, 선희,
재현, 일희, 영수, 진희, 원희, 영대,
병목, 효식, 재면, 찬목, 칠희, 영희,
원구, 정희, 재규, 학목, 평희, 이희,
수익, 운희, 영희, 종길, 창성, 재철,
동목, 태수, 재춘, 용세, 회경, 계희,
규희, 태규, 태집, 장희, 창식, 정한,
항식.
書雲觀正公派 : 규면, 대선.
正儀公派 : 인희, 태호, 수일.
按廉使公派 : 태은, 을학, 태용, 해면,
윤식, 천희, 재서, 홍경, 태영, 재성,
재우, 홍태, 수만, 부식, 예목, 창희,
재학, 재홍, 선희, 준희, 노진, 국보,
사관, 재익, 성희, 재은, 호식, 연춘,
태린, 진희, 성희, 재택, 미선, 희윤,
재원, 영수.
計 3,740,000

郡事公派 : 재각, 원용, 세목.
都評議公派 : 영수, 영복.
副使公派 : 재철.
書雲觀正公派 : 재준.
安靖公派 : 원목.
派未詳 : 종식, 태위, 재관, 성한, 중
희, 경중, 재중, 재항, 태철, 수희,
형식, 상보, 준목, 정희, 석배, 동수,
재하.
計 1,042,000원

찬조자 명단

1999. 4. 1.~7. 12
壹拾萬원 : 태훈(翼), 규선(副), 前
會長 재기(按), 전서공파 회장 근성,
준희(郡).
五萬 원 : 윤식(翼), 승희(派未詳)
參萬 원 : 철식(翼), 인목(按), 주길
(翼), 태근(大), 재호(翼), 용희(翼),
홍희(翼), 재호(郡), 용일(未), 봉민
(未), 재봉(未) 만희(未).
計 960,000원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1999. 4. 1~7. 12.
翼元公派 : 상용, 이행, 재만, 태관,
형식, 수돈, 명옥, 달수, 김준, 재윤
按廉使公派 : 영만, 태석, 태봉, 연창,
관희, 성희, 명희, 태만, 선진, 재관.
提學公派 : 창호, 덕용, 두용, 용환,
태상, 규영, 재웅.
文溫公派 : 재희, 재복.
密直司使公派 : 종목.
典書公派 : 재현, 태호, 경희.

평생회비 납부자

1999. 1. 25.~7. 12.
容學(翼) 200,000
容斗(提) 200,000
熙大(都) 200,000
計 600,000원

중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會報64號 誤字訂正

* 우리 安東金氏의 族親繁榮의 勢
에서
1면 2단 위에서부터 17행 味驟는
味鄒로
1면 2단 아래 첫줄 끝 諡을 諡로
2면 2단 위로부터 11행 끝 瑄을
瑄으로
2면 2단 위로부터 17행 順天을 天
順으로
2면 2단 끝줄 첫번째 鎮을 鎮으로
2면 3단 위로부터 15행 嶺南觀察使로
2면 3단 아래로부터 셋째줄 끝 曹順
을 順으로
2면 4단 첫줄 上洛侯를 上洛侯로
2면 4단 위로부터 넷째줄 淺을 蔽
으로
2면 4단 8행 은석루를 호석루로
* 安東金氏 世居地由來 에서
3면 1단 둘째줄 끝 世巨地를 世居
地로
3면 1단 6째줄 첫번째 味離를 味鄒로
3면 2단 12줄째 끝 松亭元을 松亭
原으로, 13줄 先祖를 宜祖로, 16줄
金代燁을 金大津으로, 先祖를 宜祖
로, 아래로부터 첫째줄 配享을 配
享으로, 아래로부터 넷째줄 人造反
正 때를 仁祖反正으로
3면 3단 위로부터 7째줄 끝 正字를
亭字로, 위로부터 16줄 끝 守明을
守領으로, 아래로부터 셋째, 여섯째
줄 漢末을 韓末로, 아래로부터 9째
줄 蔡齋恭을 蔡齊恭으로
* 2면 익원공파 총회 공고
회장 金瓚會를 金瓚會로,
* 2면 文溫二子明理誌石에서
2면 1단 아래로부터 7줄 金傳을
金傳로
* 4면 중중동정에서
첫번째 泰麟僉宗을 賢宗으로, 治下
를 致賀로, 祝古稀에 在起僉宗을
賢宗으로, 祝就任에 在哲僉宗을 賢
宗으로, 光植僉宗을 賢宗으로 바로
잡습니다.
* 4면 알고 넘어갑시다 공신록 기
사에서
끝에부터 둘째줄 鐵卷을 鐵券으로,
5째줄 功臣錄卷을 功臣錄券으로, 7
째줄 綠勳都監을 錄勳都監으로, 11
째줄 錄卷을 錄券으로
* 4면 약초찾아 30년기사에
위로부터 3째줄 끝 金在吉을 金在佶
로 바로잡습니다.

書雲觀正公派 제6회 관향순례

(김씨왕릉 순례)

지난 4월 17일~18일, 1박 2일로
경주 인근 지역의 김씨왕릉들을
순례하는 화수회를 41명의 종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재미있게 끝마
쳤다. 한진 고속관광버스로 17일
오전 8시에 사당동을 출발, 광주
지월리 허난설헌 문화재묘역 앞
에서 정차, 묘역을 멀리서 참배하고,
중부고속도로, 추풍령 경유, 대구식
당에서 중식, 직지사를 관광하고
오후 4시 경주 도착. 신라의 고도를
한눈에 볼수 있는 박물관을 시찰
하고 신라의 고분군을 찾았다. 우리
김씨 왕릉중 첫 번째 찾은 지증왕릉
(智證王陵, 일명 천마총, 경주 155호
고분, 웅대한 신라인의 자랑거리)
관광을 마치고 숙소인 그랜드 모
텔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은 8시에 숙소를 출발, 토
함산의 석굴암, 불국사, 패룡(元聖
王陵) 등을 관광후 동해안 감포의
수증왕릉(水中王陵, 신라 30대 文
武王陵)을 돌아보고 경주로 돌아와
삼남집에서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서울로 향할. 오후 7시에 아
쉬운 작별을 하였다. 먼 친척이 가
까운 이웃만 못하다 한다. 친척끼리
1박 2일로 노래도 부르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하면서 관광을 하니 헤
어지기 싫을 정도로 친목을 다졌다.
관광버스 차창밖으로 경치를 보니
중간의 모든 도시들이 깨끗하게
건설되었고 특히 경주는 3~4년 전
과는 판판으로 전 도시를 새로 조
성되어 어느 외국 관광객들에게
보여도 자랑할만하게 단장되어 있
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금년에도 규태 이사가 16쪽에 달
하는 "김씨왕릉순례"라는 자료를
만들어 출발전에 나누어 주어 관
광할때마다 펴 읽으면서 관광을
즐겼고, 在英 상무이사는 10쪽에

金貞淑畫伯 大韓民國 美術大展 에서 特選三回 (東洋畫)



金貞淑畫伯은 文溫公派 參議公
후손으로 益山市廳에 勤務한 相會
賢宗의 장녀로 목포 대불대학교
교수로, 1994년, 1995년, 1999년 대
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연3회에 걸쳐
특선을하여 그 작품을 청와대에
寄贈하여 문중의 榮譽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相會賢宗의
内外가 청와대에 초빙되기도 하였
다. 이에 全羅都事公 宗中에서는
이를 祝福하기 위하여 宗中會를
개최하여 功績을 致賀하고 褒賞을
하였으며 가수 金富子를 초빙하여
축하연을 열기도 하였다.

달하는 관광 소감을 적어 보내왔
는데 지면관계로 안타깝게도 이렇
게 요약한다. 在英 상무이사님의
기행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
다. 귀경길의 버스 안에서 종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1박 2일의 원거리
여행은 비용도 많이 들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젊은 층이나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움으로 내년부터는 일
요일 당일코스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정하여 순수한 화수회로
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상의 기록을 찾아서
규태(圭台)이사는 공직생활을 하
면서 틈틈히 조상의 기록을 각종
문헌에서 찾아내고 있다. 최근 '조
선왕조 실록'과 '죽계일기(竹溪日
記)'에서 諱 敬立과 諱 信立의 새
로운 관직을 발견하였고, '명말청
초조선시선집연구(明末清初朝鮮詩
選集研究)'에서는 하당공 諱 瞻의
수창(酬唱) 시문의 제목도 발견하
였다.
발견한 내용을 소개하면 '조선왕
조실록'에 의하면 "선조 35년 5월
28일(己丑), 충주판관을 역임한 벽
동군수(종4품) 金信立은 관직에서
물러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죽계일기'에 의하면 "선조 35년 6
월 21일(辛亥), 金敬立이 의금부도
사(종5품)가 되었다"로 기록되어
있으며, '명말청초조선시선집 연구'

에는 "하당공의 수창시문의 제목은
送別正使黃公還朝이다"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문의 내용을 현재 순천
향대학교 박현규 교수에게 부탁하
고 있어 다음호에 여러 종원께 소
개하고자 한다.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